제 32 호

연중제 14 주일
(복자 김신부 외부행사)

1973. 7. 8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론】

김 대건 신부님

함 승 천 신부

오늘 복자 김신부님의 외부 행사 주일을 맞이하여 김신부님의 일대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충청도에서 태어 났읍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어난 재질을 지니고 있어 모방(나)신부님은 그를 방인(邦人) 성직자로 만들기 위해 1836년 김대건, 최방제, 최양업 세 소년을 뽑아 마카오로 유학보냈읍니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여간 고통스럽지 않아서 추위와 굶주림도 견디어야 했고, 피로와 근심으로 기진맥진하여 제대로 걸을 수 조차 없는 고생을 해야만 했읍니다. 마침내 허약할때로 허약해져서 어떤 주막에 당도하였을 때 거기서는 그의 남루한 옷차림이며 추위서 오그라들은 얼굴이 하도 이상하게 보여서 중국사람같지도 않고, 조선사람 같지도 않다면서 관헌에게 끌고가려고 까지 했읍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몽고에서 페레올고 주교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찾은 몇달후에 부제품을 받았읍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마카오로 유학간 것을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붙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페레올 주교님과 전교 신부를 영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상해로 다시 떠난 김대건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 루이·드벨시 주교님께 사제서품을 받고 그곳에 계시는 고주교님과 다블뤼 안신부님을 모시고 조선에 상륙했읍니다.

그러나 또다시 고주교님의 사명을 띠고 전교신부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연평도로 떠난 김신부님은 돌아오는 길에 관헌들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갖은 문초를 당하였지만, 끝내 굽히지 않고 임박한 죽음에 마음의 준비를 다했읍니다. 신부님은 1846년 9월 16일, 꽃다운 나이 25세에 참수 치명을 당하셨읍니다. 또한 김신부님의 부친 이나시오도 1839년에 순교 하셨읍니다. 김신부님은 그후 1925년 7월 5일 로마 에서 시복식이 있어 복자위에 오르셨읍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슬픈일이 아니고 하느님으로 부터 사랑을 받은 특은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과 같이 신앙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영신생활을 한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모두가 김신부님처럼 신앙을 고백할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읍니다.

현재 한국에는 신부님들이 571분, 주교님이 12분입니다. 5천만 인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의 사제 들입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열고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앞장 서도록 노력합시다.

(노송동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그 성현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우며 악한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는 굳은 반석위에 서 있었도다.

□**제1독서** (역대기 후서 24 : 18—22)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자카리아를 죽였도다.

□**층계송**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 내 바위 내 성채는 당신 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다 주소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제2독서** (로마서 5 : 1—5, 성서 P. 345)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0 : 16—23, 성서 P. 21)

박해를 각오하라.

□**신자들의 기도**

1.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를 주셨나이다. 주여 비오니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당한 그의 죽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올바로 알아듣게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여, 우리가 벌이고 있는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이 주춤하고 있나이다. 주여 비오니, "천주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상주실것이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 편지로 힘을 얻어 우리로 하여금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게 하소서. ◎

3. 만물을 주재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알맞는 비를 주시고, 더위에 지친 우리들이 짜증스레 살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협조하도록 인도하소서. ◎

+주여 비오니,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을 기념해서 바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이 더 빨리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 이 주간의 성경 ❊

9(월)	독서	(에페소서 5 : 1— 5,	성서 P.443)
	복음	(마 태 오 9 : 18—26,	성서 P. 19)
10(화)	독서	(에페소서 5 : 6—20,	성서 P.444)
	복음	(요 한 9 : 32—38,	성서 P. 20)
11(수)	독서	(에페소서 5 : 21—33,	성서 P.445)
	복음	(마 태 오 10 : 1— 7,	성서 P. 20)
12(목)	독서	(에페소서 6 : 1— 4,	성서 P.445)
	복음	(마 태 오 10 : 8—15,	성서 P. 21)
13(금)	독서	(에페소서 6 : 5— 9,	성서 P.446)
	복음	(마 태 오 10 : 16—23,	성서 P. 21)
14(토)	독서	(에페소서 6 : 10—20,	성서 P.446)
	복음	(마 태 오 10 ; 24—33,	성서 P. 22)

□화해의 성년□

가정을 봉헌합시다

금년 성신 강림 대축일부터 화해의 성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읍니다. 내적 쇄신을 가져 보자는 화해의 성년을 맞아 무언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 예수성심 대축일에 본당 주보축일을 맞은 중앙성당에서 어느 교우(**강 재희**—오월의 마돈나 꾸리아 단장)의 제창으로 가정 봉헌 운동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마침 〈가정에 평화〉를 본당 사목 지침으로 삼고 있는지라 그 운동의 의의가 더욱 뜻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강재희씨가 자비로 인쇄해서 본당 교우 가정에 배부한 〈가정 봉헌 의식서〉(경향 잡지사 발행—노주교 감준)는 가정 봉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읍니다.

——가정 봉헌의 뜻을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성심 상본이나 성상을 가정에 공경되이 모시고, 온 가정을 성심께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은 자기를 성심께 바친 이상, 자기 가정으로 알지 말고 성심의 가정으로 알아 성심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하며, 무엇이던지 성심께 상의해서 하며, 즐거운 때는 성심과 같이 즐기고 슬픈때는 성심으로 위로를 삼으며, 고통이나 근심이나, 현세나 후세나 어느것을 물론 하고 다 성심께 맡기고 그 성의대로만 하기로 가정의 전권을 성심께 바쳐야 한다.

말하자면 가정 봉헌의 요소는

1. 예수 성심 성상을 가정에 존경되이 모시고
2. 성심께 전 가정을 바치고
3. 참다운 신자생활을 하기로 성심과 약속하는, 이 세 가지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가정 봉헌의 의의에 대해서, 소위 현대의 지성인들은,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는 가정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가정에 평화가 없을 때 그 가족들 하나 하나는 불안하게 되며,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도 평화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성년에 우리 모두가 예수 성심께 가정을 봉헌하여 내적 쇄신을 얻고, 이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겠읍니다.

□양지쪽□

달 걀 한 알

다방에서 흔히 통닭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 듣는 이에겐 조금 얼떨떨한 느낌이 들 수 있다. 분명히 영양센터도 아닌데 무슨 통닭인가고. 그러나 주문된 통닭(?)이 배달되고나면 실없는 미소가 터지고 만다. 쪄그만 달걀이 바로 그 통닭이었으니까.

옛부터 우리의 생활과 재물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것은 재물이 바로 우리의 생활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면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만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에는 재물이 필요하고, 정당한 수고로 주머니가 불어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잠깐, 옛부터 전래해오는 부자되는 명언을 같이 음미해보자. —달걀을 안겨서 병아리를 까고, 자라난 암탉은 자꾸만 달걀을 낳고, 또 까고 또 낳고 하다가 송아지를 사고, 그게 자라서 암소가 되어 새끼를 낳고 하다 보면 일이된다—는 그 옛 이야기 말이다.

요사이 내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에 암소가 된다는 달걀이 교탁에 봉헌되는 일이 생겼다. 때가 때인지라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서 모두가 짜증스럽고, 불쾌지수를 따지는 이 끈끈한 날씨에, 한시간의 수업을 해낸다는 일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어느 학급에 들어가면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를 입은 통닭이 교탁위에 누어 있는 것이다. 그걸 보면 짜증이 잠시 도망을 가고 만다 달걀 한알이 그리도 커서가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다. 다만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주는 여러가지 감회때문에 그렇다.

모두들 각박하다고 하는 요즈음의 세태에, 철없이 까불어 대기만 한다는 학생들이 보여준 감사하는 마음은 정녕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도 남는 일임에 틀림없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사가 끝날 때마다 천주께 무엇을 감사 드리는가? (갑)

성서와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중앙성당옆 (전화 ②7398)

전주전신전화국앞
제과 ②5011 찻집 ②5013
개 업
프 랑 스 제과
임 금 님 찻집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 원 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왕 자 표 연 탄
전화 : ②5287 ②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윤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 수 옥(분도)

✻ 대화의 광장 ✻ 진디밭

나만이라도 불사조 (不死鳥)

김 영 구 신부

사회가 썩었으면 나만이라도 썩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다른 사람은 부패되었드라도 나만은 살아 움직여야 하겠읍니다.

내가 일하는 순간, 내가 속해있는 단체가 혼란되고 구린내가 나도 나만은 기어코 올바르고 단정하게 살아야 하겠읍니다.

나는 하나,

그러나 이 하나가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인 것이다.

기둥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허무러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한 인간 역사의 자취를 살펴 봅시다.

◇ ◇

위대한 지도자를 가졌으되, 그 국민 대중의 마음들이 썩어빠진 나라와 사회는 다 망했어도 비록 폭군(暴君)패들의 상전(上典)이라도 정신이 살아있는 백성들은 망한 일이 없었읍니다.

오늘도 주위에서 썩은 냄새가 우리를 색힐려고 하지만 기어코 나만은 썩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웟 물이 흐렸는데 나만 어떻게 깨끗할 것이며, 세상이 그러한데 나 혼자 별수 있나 하는 신념(信念)은 자멸(自滅)의 신호인 것이다.

나는 하나.

그러나 이 하나가 우주의 정기(精氣)를 타고난 하나인 것입니다.

의롭고 바르게 살아 가는데는 위 아래의 구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라고 적게 보지말고 이 기둥을 썩히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썩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기주의(利己主義)가 아닙니다.

인간의 중량(重量)과 그 가치(價値)는 수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다운 참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빠진 천명(千名)이 살아있는 의인 한 사람의 무게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어빠진 한 민족을 의로운 한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파당(派黨)과 모략(謀略), 엽관 뇌물에 눈을 뜨지 못하는 시절, 한 사람 송죽 (松竹)같은 충무공(忠武公)이 국난(國難)을 이겨내는 역사를 나는 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 나라가 썩어 너머진다고 단정(斷定)한다면, 그것은 내가 썩기 때문이라고 자백(自白)하여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느 단체,어느기관이 부패해 너머진다면 그것은 내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너머진다고 고백(告白)해야 합니다.

나 하나, 이것마저 내어 버려서는 않되겠읍니다.

나 하나, 이것마저 썩음에 물들어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서도 이 최후의 아성(牙城)을 굳게 지켜야 하겠읍니다.

이 밤이 다가고 새날이 오면, 이 나 하나를 삼키려는 악귀(惡鬼)들이 사면에서 입을 벌일것이나, 굳게 서서 싱싱하게 나만은 더러워지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참말 나 하나만이라도 썩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전동 1가 132-4)

가톨릭 쎈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②3498)

가톨릭 센터를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을 좀 더 편리하게 모시고자 올 여름에 온방시설을 갖추기로 하였읍니다.

공사기간 동안 (7월, 8월) 시민 여러분을 모실 수 없어 섭섭하기 짝이 없읍나다.

무덥고 긴 여름동안 부디 건안하시어, 9월이오면 밝은얼굴로 다시 뵙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1973년 7월

관장 박 진 량 아룀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②2212 ②7071)

김 병 구(반첸서오)

✻ 축 발 전 ✻

동남샤프 {T V 냉장고 선풍기

전 주 대 리 점

전 화 ②8121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 복 진 / 사도 회장 김 종 순

1. 지난주 본당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가장행렬상 ; 1등—중노송동, 2등—태평 1가 2구 3등—진북 2구
   ◎ 청백전 종합우승 ; 청군
2. **첫 영성체 교리시작** ; 오는 7월 10일(화)오후 5시부터 교리를 시작하겠아오니 교우 여러분 께서는아직 첫 영성체를하지 않은 자녀들을 전원 나오도록독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성당에서.
4. **부녀부 간부회의** ; 오늘 공식 미사후에 있아오니 간부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요망합니다.
5. **여고생 작품 전시회** ; (문학, 미술, 가정, 기술)
   장소 ; 중앙 성당 여고생
   시일 ; 73년 7월 8일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주관 ; 중앙 성당 강당
   많은 교우들의 참여와 격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6. **교무금** ; 신입한 교무금을 속히 완납 합시다.
7. **신용조합원 통장 제출** ; 조합원께서는 7월 16일까지 통장을 사무실에 내 주십시오.
8. **교리교사 모집** ; 본당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실 분은 7월말까지 교리 교사 (혹은 부녀부장)님들과 상의하십시오.

□지난 주일 봉헌금 31,684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 사도 회장 이 태 영

1. **신용조합 월례회**(오늘 10시 미사후,경품놀이 있음)
2. **조합원은 신용조합 통장 대조 바람**(7월 9일까지)
3. **교무금을 7월중에 완납 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일 봉헌금 배가운동에 적극 협조합시다.**
5. **첫 영성체 교리** 7월 7일부터 8월14일 까지 매주 토요일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교황 주일 특별 헌금 1,05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1,20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 종 택 / 사도 회장 송 영 기

1. **어린이 교리반 교과서**가 준비 되었읍니다.
   〈값 150원〉
   현재 어린이 교리에 사용되는 교과서를 부형님들께서는 빨리 구입해 주십시오.
2. **어린이 교리**에 어린이들은 많이 보내주십시오.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조합원들 께서는 많이 출자해 주십시오.
4. **교무금**을 7월중에 완납하여 주십시오.
   본당 운영에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 교황 주일 헌금 3,370원
지난 주일 봉헌금 5,03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 사도 회장 조 성 호

1. 7월은 **교부금 완납**의 달입니다.
2. **사제양성 후원금**을 제날에 납부합시다
3. **고백성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미사후 주일미사 30분전
4. 대신학생 한분을 방학동안 본당에 모시기로 하였읍니다.
5. 속죄의 뜻으로 정성어린 **성미**를 바칩시다.
6.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성당 청소**가 있읍니다. 몇번이나 성당청소에 협력하였는지 각자 생각해 봅시다.

※ 7월 5일은 안드레아 대건 김신부님의 시복 축일이였고,오늘은 복자 김신부님의 외부행사날로써 복자 제대에 안치된 **유해를 참배**하고 기도 합시다.

□ 교황 주일 헌금 2,300원 지난 주일 성미3말 2되
지난 주일 봉헌금 10,30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 사도 회장 육 낙 철

1. 7월 8일 저녁 미사후 **고등학생 월례회**
2. 7월 9일 밤 9시 4. **5반 반회**
3. 7월 9일 밤 9시 **3반 반회**
4. 7월10일 밤 9시 **17반 반회**
5. 자신이 신립한 **교무금 완납**하여 본당 살림 합시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3,16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 석 규 / 사도 회장 송 영 선

1. **구역미사 봉헌**

동완산동	7월10일(화)	밤 8시반	이병식씨댁
서완산동	7월11일(수)	〃	구역회장댁(이헌재)
교동 1가	7월12일(목)	〃	이귀남부녀부장댁
교동 2가	7월13일(금)	〃	전승우씨댁
전 동	7월17일(화)	〃	정인찬씨댁
풍 남 동	7월18일(수)	〃	이상헌씨댁
남노송동	7월19일(목)	〃	구역회장댁(이경숙)
중 앙 동	7월20일(금)	〃	김민주씨댁
다 가 동	〃		(미미제과)
경 원 동	〃		〃

※ A. 구역미사 전후 고백성사 줍니다.
B. 많은 분이 구역미사에 참여합시다.
C. 교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D. 구역미사동안 본당 주요일 밤미사는 아침에 있음

2. **자모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사제관
3. **첫 영성체 특별 교리** 매일 오후 5시
4. **애령회 특별 헌금** 적극 협조하여 불쌍한 이웃 도웁시다.
5. **성당 바닥 수리키로 결의** (7월 1일 사도회에서)
   마루바닥을 인조 대리석으로 개조하기로 결의하였아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6. **복자 김신부 외부행사** (오늘)
   지난 7월 5일은 복자 김신부님 순교 기념일이었으나 주일이 아니었으므로 오늘 그 외부행사를 갖겠읍니다

□ 교황 봉헌금 7,396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29,401원, 감사합니다.

◉ 닭·염소·야생동물 일체 ◉

화랑 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 시장 닭전 전화 ②6691 (교환)108

최 씨 관 집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② 6691 교환85번)

※ 역전 보광 출판 사 인쇄 ※